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

윤정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선정도서의 분석 |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 선호된 작품 |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2 선호된 작가 |
| 2.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재 동향 | 3. 3 선정도서의 간행연도별 분석 |
| 2. 1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참여 | 3. 4 선정도서의 장르별 분석 |
| 2. 2 주별 및 지역사회별 프로젝트의
분석 | 3. 5 선정도서의 주제별 분석 |
| | 4. 맷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독서운동의 한 형태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혁적, 지속적 및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또한 ‘한 책’ 선정 작가 및 도서의 주제, 장르, 간행연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사회가 함께 ‘한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이해하도록 시도한다. 미국국회도서관(LC) 도서 센터 웹사이트의 ‘한 책’ 프로젝트의 지역별 및 작가별 리스트를 분석하고, LC OPAC에서 조사한 ‘한 책’ 선정도서의 서지 레코드를 분석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간행도서에 대한 선호, 전기 및 전기적 소설의 중요성,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의 집중성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

ABSTRACT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s one of the major reading campaigns, successfully conducted by public libraries in this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as an innovative, continuing, and collective reading campaign by analyzing its growth and diffusion during the past six years. Also, analyzed are the themes, genres, and publication dates of the boo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s selected for ‘One Book’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al, social, and community-wide trend and objective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An analysis of list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s Projects’ available from the website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and bibliographic records of ninety books from LC OPAC, shows the preference for books recently published, significance of biographies and biographical fictions, and focus on the themes which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미국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운동, 서지 레코드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in the U.S., Community Movement, Bibliographic Record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6월 10일

제재확정일자 2005년 6월 28일

1. 머리말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함)은 금세기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워싱턴 도서 센터(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가 주관한 ‘시애틀 온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는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이다.

시애틀의 ‘시애틀 온 시민이...’ 프로젝트라는 개혁적 독서운동이 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한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한권의 책을 함께 읽도록 권장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동기가 부여된 시민들 사이에 독서와 토론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독서운동이 ‘한 책, 한 도시’란 이름을 갖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시작된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이다. 시카고 공공도서관과 시카고 시가 주도하여 온 시민이 하퍼 리(Harper Lee)의 폴리처상 수상작인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를 읽자고 한 데서 시작된 ‘한 책, 한 시카고’는 책과 다양한 매체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관

심을 모으면서, 지역사회의 주요한 단체, 인물, 기업 등의 적극적 협조를 얻었고, 미국 국내 및 국제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2002년부터 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윤정옥 2004).

미국국회도서관의 도서센터에서 유지하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 웹 사이트의 등록 리스트를 보면 2005년 5월 현재 미국 국내에서 50개 주의 310여 개 지역사회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C 2005a).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한 책’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 독서운동을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획일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 책’ 프로젝트가 단발적, 일회적 행사가 아닌 연례적, 지속적 행사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개혁(innovation)’으로서 ‘한 책’ 독서운동을 공공도서관들이 받아들였고, 각각의 지역사회도 함께 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한 책’을 선정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지역사회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제로 ‘한 책’ 운동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 기관이 그 진행 전반에 협력하게 함으로써 ‘한 책’ 운동이 도서관에서 지역사회로 나가 파고 들어가는 ‘아웃리치(outreach)’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도서관으로 다가오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의 괄목할 만한 확산에도 불

구하고, 이 독서운동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시건 주의 이스트랜싱(Watkins 2003a), 미시시피 주의 잭슨(Sumner 2003), 버지니아 주(Michalik 2004)와 같이 몇몇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개별적 '한 책' 운동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고, 국내에서는 주요한 '한 책' 독서운동의 시작과 목표에 대한 사례 분석과 더불어 전체적 특성과 경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윤정옥 2004)가 수행된 적이 있다. 이들 연구가 모두 '한 책' 독서운동 자체의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한편, 읽을거리로 선정된 '한 책'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직 눈에 띠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이후 단지 여섯 해 동안에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독서운동의 한 형태로서 자리 매김한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 책'으로 선정되어 읽히는 책들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사회가 함께 '한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시도한다.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 국회도서관 도서 센터(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에서 유지하고 있는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웹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들을 분석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의 각 주(州)와 지역에서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

행되고 있는 '한 책' 프로젝트의 리스트(<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및 '한 책'으로 선정된 도서의 작가별 리스트(<http://www.loc.gov/loc/cfbook/onebookbyauthor.html>)를 수록하고 있다(LC 2005a; LC 2005b).

2005년 5월 현재, 이 웹 사이트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진행된 316개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있고, 버지니아 주에서 주관하는 한 개의 전국 프로젝트 및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7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모두 324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의 확산과 지속성에 기초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프로젝트들의 지역별 분포 및 시작연도, 2004년과 2005년 시행 여부를 검토하였다. 324개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한 책' 프로그램 수는 모두 660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단위로, 하나의 '한 책' 프로젝트가 오년 동안 매년 진행되었으면,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만약에 삼년 동안 진행되었으면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한 책'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서는 모두 353 종(titles)에 이른다. 그 가운데 263 종의 도서는 단 하나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한편, 90종의 도서는 적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스물여섯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이들 90종의 도서는 모두 407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 90종에 대하여 미국국회도서관 온라인 목록(<http://catalog.loc.gov>)에서 서지 레코드를 검색하고, 각각의 간행연도, 주

제표목 및 장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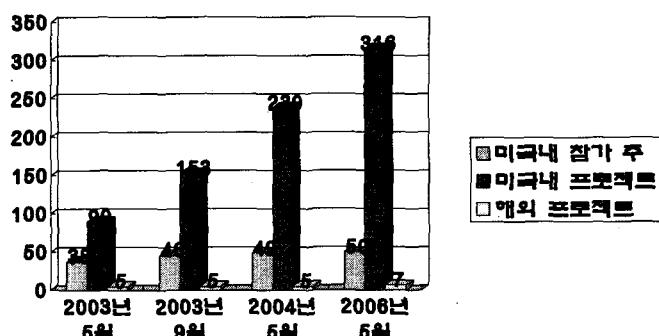
2.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재 동향

2. 1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참여

‘한 책’ 독서운동은 1998년 아래 불과 6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림 1>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미국 국회도서관의 ‘한 책’ 리스트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시애틀의 ‘시애틀 온 시민이...’ 프로젝트가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한편, 2003년 5월에는 모두 38개 주에서 90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등록되었고, 2003년 9월에는 153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49개 주에서 수행된 239개의 프로젝트가, 2005년 5월 현재에는 50개 주에서 수행된 316개의 프로젝트와 함께 호주,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행된 7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리스트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한국의 서

산, 순천, 부산 등의 도시에서도 ‘한 책’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성은 특정한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지를 갖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은 지금 까지 등록된 ‘한 책’ 프로젝트의 수적 성장 추이를 보여 주고 있지만, 각 프로젝트의 현재 지속 여부는 보여 주지 않는다. <표 1>은 1998년부터 매년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수를 보여주고, 각 프로젝트가 2004년 및 2005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책’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1998년에는 시애틀의 ‘시애틀 온 시민이...’ 프로젝트만이 등록되어 있고, 2000년에는 뉴욕 주 버팔로의 Just Buffalo Literary Center가 주관하는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로체스터의 Writers & Books라는 단체가 시작한 ‘If All of Rochester Read the Same Book’ 및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도서 센터가 주관한 ‘All Virginia Reads’라는 세 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새로 등록되었다. 시애틀 및 뉴욕 주에서 시작된 두 개의 ‘한 책’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매년 계속되고 있는 한편,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 전역에서 2000년 월리엄



<그림 1>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 추이

〈표 1〉 '한 책' 독서운동의 시작과 진행 현황

시작 연도	프로젝트 수	2004년 진행	2005년 진행
1998	1	1	1
2000	3	2	2
2001	13	9	5
2002	113	80	28
2003	86	68	42
2004	76	76	46
2005	30		30
합계	322 (+2)	236	154

스타이론(William Styron)의 *Sophie's Choice*를 읽는 '한 책' 프로젝트를 한 번 수행한 후, 현재는 지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 등록되어 있는 '한 책' 프로젝트의 현재 지속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는 13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지만,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9개 프로젝트이고, 그 가운데 2005년까지 계속된 것은 5개 프로젝트뿐이다. 그러나 아직은 특정한 '한 책' 프로젝트의 2005년 중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일년에 한 번 진행되는 '한 책' 프로젝트가 그 해의 하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가 미국 국내 및 해외로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으므로, 그 다음해인 2002년에는 '한 책' 프로젝트의 획기적인 수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모두 113개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2004년까지 진행된 것은 80개, 2005년 상반기 현재까지 지속된 것은 28개 프로젝트이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한 책' 독서운동이 확산되어 2003년에는 86개, 2004년에는 76개, 그리고 2005년 상반기까지 3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한 책' 프로젝트는

모두 324개로 그 가운데 두 개의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작연도를 알 수 없어, 시작연대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4년에 진행된 '한 책' 프로젝트는 모두 236개로, 2004년 처음 시작된 76개를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작된 216개의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모두 160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의 74%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2005년 상반기 현재까지 30개의 새로운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4년에 시행된 236개의 '한 책' 프로젝트 가운데 124개 프로젝트(52.5 %)가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12개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개가 2005년에 진행될지를 주목하고, 전체적 지속성의 양상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수치는 2004년까지 등록된 모든 '한 책' 프로젝트 수가 292개라고 한다면, 이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년 시행되고 있고, 2005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지속된 프로젝트의 비율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시애틀이나 시카고의 성공적 사례의 가시성에서 비롯된 유행에 편승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독서운동으로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주별 및 지역사회별 프로젝트의 분석

2005년 5월 현재 미국 내 모두 50개의 주에서, 또한 각 주에서는 여러 다양한 규모의 지역 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메릴랜드 주, 노스다코타 주 등은 한 개, 뉴멕시코 주, 와이오밍 주는 두 개 등 일부 주에서는 소수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등록되고 있어 있다. 여기에서 등록 여부만을 언급한 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지역사회는 한 번 '한 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등록하였지만, 계속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등록되어 있는 주별 프로젝트의 수를 보면, 매사추세츠 주가 31개로 가장 많은 '한 책'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주 전역(state-wide)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모두 23개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는 각각 20 개, 플로리다 주는 18개, 미시간 주는 17개, 뉴욕 주는 16개 등 대부분 크고 인구가 많은 주들에서 여러 개의 '한 책'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전역에 걸쳐서(state-wide) '한 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도 27개나 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에서는 'Alaska Reads'라는 이름으로 2002년부터, 애리조나 주에서는 'ONE BOOK AZ'라는 이름으로 역시 2002년부터, 아칸소 주에서는 'If All Arkansas Read the Same Book'라는 이름으로 2001년

부터,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주는 미국 동부에 소재한 작은 주지만, 프로비던스 공공도서관의 로드아일랜드 도서 센터(Rhode Island Center for the Book)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매년 'Reading Across Rhode Island'라는 이름의 '한 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주에서 선정한 도서는 2003년에는 *Wish You Well*(David Baldacci), 2004년에는 *The Secret Life of Bees*(Sue Monk Kidd) 및 2005년에는 *The Kite Runner*(Khaled Hosseini) 이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2년 존 스타인벡의 노벨상 수상 작품인 '분노의 포도'를 '한 책'으로 선정하여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주 전역에서 모두 184개의 도서관에서 1,000여 가지 행사가 열렸던 '한 책'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하지 않고 있다(윤정옥 2004).

주 전역에서 '한 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한 책' 프로젝트에 비하여 전면적 독서운동으로서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 그에 비해 각 주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한 책' 프로젝트는 그 지역사회 및 주관 기관에 따라 규모가 매우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 책' 프로젝트가 그런 것처럼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주관할 경우, 대부분 실제 참가하는 도서관 수는 매우 많다.

앞서 살펴본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에 칠십여 개의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참여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

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 LAPL)이 2002년부터 수행하는 'One Book, One City L.A.'에는 LAPL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두 84개의 분관이 참여하고 있다(<http://www.lapl.org>).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On the Same Page Cincinnati' 도 신시내티와 해밀턴 카운티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및 모두 41개의 분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한 책'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주 Cincinnati Enquirer(신문), Cincinnati.Com, 해밀턴, 부운 및 켄턴 카운티 공공도서관 등이 아울러 후원하고 있는데, 첫 해인 2002년 4월에는 *A Lesson Before Dying*(Ernest J. Gaines), 2003년에는 *Savage Inequalities*(Jonathan Kozol)를 '한 책'으로 선정하였고, 2004년에는 어른들을 위해서는 *Crossing the River*(Caryl Phillips), 청소년을 위해서는 *Hush*(Jacqueline Woodson)를 각각 선정하여 읽도록 하였다.

일찍이 2000년부터 시작된 뉴욕 주 버팔로의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는 도서관이 아닌 기관이 주관하는 예이다. 비영리 문학 센터인 Just Buffalo Literary는 단일 기관으로서 비록 소규모이지만 다른 지역사회보다 이른 2000년부터 지속적 '한 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선정도서는 2000년, *A Lesson Before Dying*(Ernest Gaines), 2001년, *Queen of the Mist*(Joan Murray), 2002년, *A Hope in the Unseen*(Ron Suskind), 2003년, *The Price of a Child*(Lorene Cary), 2004년, *The God of Small Things*(Arundhati Roy), 그리고 2005년, *The Invention of Solitude*(Paul Auster)이다. 2002년부터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CBC Radio가 주

관하는 'Canada Reads'처럼 도서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한 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예가 종종 눈에 띄기도 하지만,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진행, 도서의 공급, 독서토론 등 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전폭적 지원 하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공공도서관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선정도서의 분석

'한 책' 독서운동에 선정된 책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사회가 주민들로 하여금 읽도록 권장하는 책이다. 모든 '한 책' 프로젝트가 매년 다른 책을 읽을거리로 선정하게 되므로, 하나의 '한 책' 프로젝트마다 이미 적게는 한 권, 많게는 다섯 권까지의 '한 책'이 관련되어 있다. 전체적인 '한 책' 독서운동이 지역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별성은 도서의 선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윤정옥 2004).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한 책' 프로젝트에 선정된 책은 모두 353 종(titles)에 이른다. 그 가운데 263 종의 책은 단 하나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한편, 90종의 책은 적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스물여섯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이들 90종의 책은 모두 407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참고로 1998년 시애틀에서 선정한 최초의 '한 책'은 1991년에 간행된 러셀 뱅크스(Russell Banks)의 *The Sweet Hereafter*이다(SPL 2003).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 90종을 미국국회도서관 온라인 목

록(<http://catalog.loc.gov>)에서 조사하여, 간행연도, 주제표목 및 장르를 분석하였다. 물론 단 하나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까지 포함하여 이 같은 특성을 분석하면 훨씬 흥미로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매우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도서선정의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한 책'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선정된 도서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만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3. 1 선호된 작품

두 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90종의 책 가운데 가장 선호된 것은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에서 처음 읽었던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로 모두 26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한 책, 한 시카고'에서 이 책을 처음 선정할 때 언급한 이 작품의 주제나 문학적 가치 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책을 위해 마

련된 '독서토론 지침'이나 자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개의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이 책이 선정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선호된 작품은 레이 브래드베리(Ray Bradbury)의 '화씨 451도(Fahrenheit 451)'로 처음 간행된 것은 1967년이지만, 199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주제로 인하여 다시 베스트셀러가 된 화제의 작품이다. 모두 23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어니스트 게인스(Ernest J.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1993년)이 21개 프로그램, 미치 앤범(Mitch Albom)의 *Tuesdays with Morrie*(1997년)이 19개 프로그램, 호머 히컴(Homer Hickam)의 *October Sky*(1998년)가 18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표 2 참조).

〈표 2〉에서는 가장 많은 도서관들이 선정하였던 상위 11종의 도서만을 살펴보았지만, *Pay it Forward*(Catherine Ryan Hyde, 1999), *The Giver*(Lois Lowry, 1993), *All Over But the Shoutin'*(Rick Bragg, 1997), *A Long Way From Chicago*(Richard Peck, 1998),

〈표 2〉 선정 도서: Top 10

순위	제목	저자	간행연도	선정 프로그램
1	<i>To Kill a Mockingbird</i>	Harper Lee	1960	26
2	<i>Fahrenheit 451</i>	Ray Bradbury	1967	23
3	<i>A Lesson Before Dying</i>	Ernest J. Gaines	1993	21
4	<i>Tuesdays with Morrie</i>	Mitch Albom	1997	19
5	<i>October Sky (a.k.a. Rocket Boys)</i>	Homer Hickam	1998	18
6	<i>Peace Like a River</i>	Lief Enger	2001	12
7	<i>Plainsong</i>	Kent Haruf	1999	11
8	<i>The Color of Water</i>	James McBride	1996	11
9	<i>The Kite Runner</i>	Khalid Hosseini	2003	9
10	<i>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i>	Mark Haddon	2003	8
10	<i>Nickel and Dimed</i>	Barbara Ehrenreich	2001	8

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Robert C. O'Brien, 1972) 등 5종의 도서가 모두 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Frankenstein*(Mary Shelley, 1944) 등 4종의 도서가 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으며, *Bel Canto*(Ann Patchett, 2001) 등 7종의 도서가 5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등 특정한 '한 책'이 여러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Native Speaker*(Chang-Rae Lee, 1995) 등 38종의 도서가 2개 프로그램에서, *The Great Gatsby*(F. Scott Fitzgerald, 1934)가 14종의 도서가 3개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Travels With Charley, In Search of America*(John Steinbeck, 1962) 등 11종의 도서가 4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가운데 *The Giver*와 *Mrs. Frisby and the Rats of NIMH*는 청소년 도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한 책'이다.

한편 가장 많이 선정된 '한 책'인 '앵무새 죽이기'는 2001년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선정된 다음 해인 2002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스타坦, 베이커스필드, 파익스 피크,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 등 14개 지역사회, 2003년에는 일리노이 주의 밸퍼레이소, 매사추세츠 주의 팰마우스 등 9개 지역사회, 2004년에는 오하이오 주 클러몬

트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웨인 카운티 등 8개 지역사회 의 '한 책' 프로젝트에서 각각 읽혔다. 한편 2005년에는 캔스اس 주의 엘 도라도 등 세 곳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¹⁾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앵무새 죽이기'를 '한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간의 편견과 이해, 용서, 인종, 성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와 관용'이라는 시카고와 오늘의 세계에 관련된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정옥 2004).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시카고 시민들로 하여금 '앵무새 죽이기'을 읽게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던 동일한 목표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공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모든 도서를 열거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최근의 공공도서관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읽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권장도서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목록은 공공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동의하고 공유하는 목표에 기초하여 선정하는 도서의 목록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독서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

1) '앵무새 죽이기'는 2005년 5월, 처음 선정도서 리스트를 분석했을 때, 26개 '한 책'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던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6월에 다시 분석했을 때에는 34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8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던 지역사회가 자체 프로그램을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2>에 나타난 선정도서의 분포는 5월 데이터에 따른 것이고, 본문에서 개별 지역사회를 예시한 내용은 6월 데이터에 따른 것이므로 숫자상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2)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Boerne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2005년 처음 시작할 '한 책' 프로젝트의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lice in Wonderland*, *Travels with Charley* 등 13종의 도서를 시민 투표에 부쳤다. 모두 849 표가 던져졌고,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가 가장 많은 178 표를 얻어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boerne.lib.tx.us/onebook/lww.htm>>(2005.6.12). 최근 부산에서 '한 책, 한 부산'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10종의 도서를 시민 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 2 선호된 작가

‘한 책’으로 선정된 353종의 도서의 작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수의 작품이 선정된 작가는 존 스타인벡과 마크 트웨인이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선정된 도서에 한정하지 않고, ‘작가별 리스트’에 수록된 모든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타인벡은 *The Grapes of Wrath*, *Of Mice and Men*, *The Pear* 및 *Travels with Charley*, 4종의 도서가 모두 1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마크 트웨인 또한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Puddn'head*

Wilson, 및 *The Selected Works*의 4종이 9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어, 이들이 가장 선호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퍼 리는 ‘앵무새 죽이기’ 단 한 작품으로 26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2005년 6월 현재, 34개 프로그램 선정), 작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작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작품 종수 면에서는 이들 두 작가가 더 선호 된다고 할 수 있다.

애니스트 게인스는 *A Gathering of Old Men*과 *A Lesson Before Dying*의 두 작품으로 22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2005년 플로리다 주의 사바나에서 ‘한 작가’로 선정되어, ‘한 책’에서 역시 대표적 작가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표 3〉 선정 작가: 선정 작품 수에 따른 Top 6

작가	작품 수	선정 작품	선정 프로그램
John Steinbeck	4	<i>The Grapes of Wrath</i>	13
		<i>Of Mice and Men</i>	
		<i>The Pear</i>	
		<i>Travels with Charley</i>	
Mark Twain	4	<i>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i>	9
		<i>The Adventures of Tom Sawyer</i>	
		<i>Puddn'Head Wilson</i>	
		<i>The Selected Works</i>	
Ernest J. Gaines	3	<i>A Gathering of Old Men</i>	23
		<i>A Lesson Before Dying</i>	
		작가 선정	
David Baldacci	3	<i>Absolute Power</i>	6
		<i>Hour Game</i>	
		<i>Wish You Well</i>	
Barbara Kingsolver	3	<i>Animal Dreams</i>	6
		<i>The Bean Trees</i>	
		<i>Small Wonder</i>	
Richard Peck	3	<i>The River Between Us</i>	9
		<i>A Year Down Yonder</i>	
		<i>A Long Way from Chicago</i>	

김형경의 〈사람풍경〉을 선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서 선정의 최종 결정자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 밖에 데이빗 벌더치(David Baldacci)와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가 각각 세 작품으로 6개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리차드 펙(Richard Peck) 역시 세 작품으로 9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선호된 작가군에 속하게 되었지만, 두 개의 작품이 '한 책'으로 선정된 작가는 손顿 와일더(Thornton Wilder), 래리 웨스턴(Larry Watson), 스탠리 고든 웨스트(Stanley Gordon West), 제리 스피넬(Jerry Spinell), 이창래(Chang-Rae Lee) 등 모두 26명이다. 그 밖에 단 한 작품만 '한 책' 독서운동에 선정된 작가는 모두 321명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이 매우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이 '한 책'으로 선정되는가는 특정한 지역의 '한 책'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시애틀에서 다양한 문학적 배경을 갖는 작가의 작품을 읽고자 했기 때문에 매년 한국계(2003. 이창래), 남미계(2004. Isabel Allende), 일본계(2005. Julie Otsuka) 작가를 각각 선정했던 예(SPL 2003), 텍사스 주에서 2002년 텍사스 주 출신의 래리 맥머트리(Larry McMurtry)의 *Lonesome Dove*를, 그리고 2004년 스티브 해리건(Steve Harrigan)의 *The Gates of Alamo*를 주 전체에서 읽을 작품으로 각각

선정했던 예, 또 캐나다의 'Canada Reads'에서 는 매년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와 같은 캐나다 출신 작가들의 작품 다섯 편을 후보로 정하고 패널 토론과 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작품을 선정하는 예(CBC 2005) 등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연고를 갖는 작가가 선정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지역마다 작가 혹은 작품을 선정하는 데서 적용시키는 선정기준까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나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3. 3 선정도서의 간행연도별 분석

선정도서 90종 가운데, 마크 트웨인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1876년 4개 프로그램 선정)와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1884년 2개) 및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Treasure Island*(1883년 2개) 등과 같은 작품은 백여 년 전에 간행되었고, 문학의 古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를 간행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비교적 최근에 간행된 작품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2>에서 본 가장 많이 선정된 최상위 두 종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덟 종의 도

〈표 4〉 선정 도서의 간행연도별 분포

간행연도	도서 종수	선정 프로그램 수	선정 프로그램 비율 (%)
2000년대	24	97	22.9
1990년대	34	188	44.5
1980년대	5	14	3.3
1970년대	5	16	3.7
1960년대	4	55	13.0
1960년대 이전	18	42	9.9
미상	4	10	2.3
계	90	422	100 %

서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간행된 것들이다. 90종 전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 간행된 도서가 모두 34종으로 178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2000년대에 간행된 도서가 모두 24종으로 95개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으며(23%), 1980년대 이전에 간행된 도서는 종수로는 모두 32종이고, 선정 프로그램 수는 134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와 ‘화씨 451도’를 제외하면, 전체 선정 프로그램의 비중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4 선정도서의 장르별 분석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국회도서관 온라인 목록에서 찾은 선정도서 90종의 서지 레코드에서 63종만 장르/형태 표목을 갖고 있었다. 이들을 첫 번째 장르/형태 표목으로 분석하였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개별 장르로서는 비소설인 전기 작품(Biography)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표목으로 분석한 이유는 어떤 작품은 ‘가정소설(Domestic fiction)’과

‘교양소설(Bildungsromans)’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장르 표목을 갖기도 하므로 이를 가운데 더 비중이 큰 한 가지 표목만을 택하기 위해서였다.

모두 15종의 책이 전기에 속하며 9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는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2004년 앨라배마 주의 헌츠빌-메디슨 카운티, 2003년 조지아 주 콜럼버스와 미시건 주 플린트 /제네시 카운티에서 선정된 지미 캐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An Hour Before Daylight*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Wish You Well*(David Baldacci)과 같이 가정소설로 구분된 작품이 10종으로 3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화씨 451도’와 같은 역사소설이 9종으로 5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는데, 선정 프로그램 수로 보아서는, 역사소설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Of Mice and Men*(John Steinbeck)과 같은 심리소설은 7종으로 2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보통 주인공의 성장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The House on Mango Street*(Sandra Cisneros)와 같이 교양소설로 분류된 작품은 모두 6종으로 3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표 5〉 선정도서의 장르별 분포

장르	도서 종수	선정 프로그램 수	선정 프로그램 비율 (%)
전기	15	94	22.2
가정소설	10	34	8.0
역사소설	9	50	11.8
심리소설	7	24	5.6
교양소설	6	31	7.3
청소년	5	28	6.6
기타	11	33	7.8
미상	27	128	30.3
계	90	422	100 %

그 밖에 *Shoeless Joe*(W.P. Kinsella)와 같은 환상소설, *Snow Falling on Cedars*(David Guterson)과 같은 범률소설, *Native Speaker* (Chang-Rae Lee)와 같은 스파이 소설 및 유머 소설, 정치소설로 분류된 작품들이 모두 11종으로 '기타' 그룹을 형성하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르가 표시되지 않은 작품 27종이 '미상'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흥미롭게도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A Lesson Before Dying*(Ernest J. Gaines), *Peace Like a River*(Enger Leif)와 같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한 책'으로 선정된 작품들도 장르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작품이 장르 표목을 갖지 않았고, 다른 책들에 적용된 소설 장르의 구분이 반드시 배타적인(exclusive) 것은 아니므로 완전히 정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전기 작품 및 등장인물에 대한 전기적 경향을 갖는 소설작품들이 많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5 선정도서의 주제별 분석

선정도서의 주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작품에 부여된 DDC 분류번호와 미국국회도서관 주제표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인 90종의 도서 가운데 30종에만 DDC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볼 수밖에 없지만, 앞 절에서 열거한 '앵무새 죽이기'(813.5421), *A Lesson Before Dying*(813.542), *Peace Like a River*(813.5421)와 같은 작품들이 장르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대신 DDC 번호를 갖고 있어, 이미 명백하긴 하지만 '소설' 장르에 속하고 있음에 대해 보완적 정보를 주고 있다.

30종의 작품은 대부분이 문학류(800 대. 9

종)과 역사류(900 대. 10종)에 속하는데, 이들 가운데 역사류에서 *The Color of Water*(James McBride. 974.7...0092), *Ecology of a Cracker Childhood*(Janisse Ray. 975.8) 등 4종의 작품은 '전기'로 장르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Seabiscuit*(Laura Hillenbrand. 798.40092), *Epitaph for a Peach*(David Mas Masumoto. 634.2584 092), *Tuesdays with Morrie*(Mitch Albom. 378.12092) 등과 같이 종류(000대. 1종), 사회과학류(300대. 5종), 기술류(600대. 4종), 예술류(700대. 1종)에 속한 작품 9종 가운데 8종이 ...92로 끝나는 DDC 번호를 갖고 있어, '전기'에 속한 장르 구분의 특성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설과 비소설로 장르를 양분할 때, 비소설의 전체적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소설 가운데는 '전기'작품의 중요성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선정도서 90종 가운데 미국국회도서관 주제표목(LCSH)를 하나라도 가진 책은 모두 81종이었다. 소설에 DDC 번호나 LC 분류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주제적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주제표목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들 81종의 도서에 대한 서지 레코드에서 역시 최초의 주제표목을 분석한 결과는 모두 74개의 고유한 주제표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선정도서들이 매우 다양한 주제표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4개의 고유한 주제표목들 가운데 스웨덴계 미국인(Swedish Americans), 정신지체자(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할머니(Grandmothers), 여행(Travel), 소년(Boys), 사형수(Death Row Inmates), 사제관계(Teacher-Student Relationships) 등 7개의 주제

표목이 두 종의 책에 나타났을 뿐, 나머지 주제 표목은 각각 한 종의 책에만 나타났다.

전체 주제표목들 가운데 몇 개만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아도 이 선정도서들이 얼마나 다양한 주제로 표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고 희생자(Accident victims), 모험(Adventures and adventurers), 항공우주기술자(Aerospace engineers), 우주비행학(Astronautics), 북극 -- 발견과 탐험(Antarctica--Discovery and exploration), 애팔래치언 트레일(Appalachian trail), 자폐(Autism), 자동차 여행(Automobile travels), 노동빈곤층(Working poor), 여성가수 (Women singer), 교통사고(Traffic accidents),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십대소녀(Teen-age girls), 탈리반(Taliban), 국가지원 테러리즘 (State-sponsored terrorism), 자매(Sisters), 가출아동(Runaway children).

각각의 주제표목의 고유성만으로 보면 선정 도서가 매우 분산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주제표목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상당히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표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표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African-American families)'으로서 *Why Are All the Black Kids Sitting Together in the Cafeteria*(Beverly Tatum), *A Hope in the Unseen*(Ron Suskind), *Having Our Say: The Delaney Sisters First 100 Years* (Sarah Louise Delany) 등 세 작품에 등장하였고, 이들은 각각 2개씩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무려 21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인 *A Lesson Before Dying*의 주제표목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African-American

men)', 4개 프로그램에 선정된 *The Price of a Child*(Loreene Carey)의 주제표목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자(African-American women)', 6 개 프로그램에 선정된 *The Watsons Go to Birmingham - 1963*(Christopher Paul Curtis)의 주제표목인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Americans)' 등을 포함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련된 주제표목은 모두 6종의 도서에 나타났고, 이 도서들은 모두 3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타난 주제표목은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Americans)'으로 보일 (T.C. Boyle)의 *The Tortilla Curtain*을 포함하는 모두 4종의 도서에 나타나고 1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으며, '일본계 미국인(Japanese-Americans)'이라는 주제표목은 *Snow Falling on Cedars*를 포함한 4종의 도서에 나타났고, 모두 1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이처럼 가장 많은 도서에 나타난 주제표목이 모두 '...계 미국인(...-Americans)' 즉, 미국 내 유색인종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더욱이 '혼혈인(Racially-mixed People, 1종, 11개 프로그램 선정)',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s, 1종, 2개 프로그램 선정)', '축토우 인디언(Choctaw Indians, 1종, 2개 프로그램 선정)', '스웨덴계 미국인 (Swedish-Americans, 2종, 4개 프로그램 선정)', '하이티계 미국인(Haitian-Americans, 1종, 2개 프로그램 선정)' 등의 주제표목들까지 고려한다면, 주제표목을 갖는 81종의 선정도서 (397개 프로그램) 가운데 모두 20종(25%)이 '...계 미국인'과 관련된 주제표목을 갖고 있고 모두 89개 프로그램(22%)에 의하여 이들이

선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매우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전체 선정도서의 주제표 목들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서 유색인종 혹은 이민자의 경험이라는 주제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제의 집중성은 2004년 당시 '한 책' 선정도서 전체 221종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23종의 도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을 다룬 논픽션 소설(*The Right Stuff*), 소련 병사의 시베리아 노동수용소 탈출(Slavomir Rawicz의 *The Long Walk*), 미국 원주민 블랙페트족 전사의 모험(*Fools Crow*), 인종차별과 혐오범죄(Alan Siporin의 *Fire's Edge*), 이란 이민의 생활(Firoozeh Dumas의 *Funny in Farsi*), 멕시칸 소녀의 캘리포니아 이주(Pam Munoz Ryan의 *Esperanza Rising*)처럼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미국 주류사회를 다루기보다는 소수민족이나 다양한 문화와 사회,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던 연구의 결과(윤정옥 2004)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맷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1998년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고, 2001년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국 전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된 개혁적 독서운동이다. 미국국회도서관 도서 센터의 '한 책' 프로젝트 리스트에는 2005년 5월 현재 미국 50개 주의 도시, 카운티, 주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작된 모두 324개

의 '한 책'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02년에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는 지속적 독서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2004년 현재 74%).

지역사회에서 읽고 토론할 대상으로 선정된 '한 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최근에 간행된 것들이며,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유색인종과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주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설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개별 장르로서는 전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 전기 작품 혹은 전기적 특성을 가진 소설작품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하게 하고, '공유된 경험의 통로'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한 책' 독서운동의 중요성이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주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정부, 각종 기관이나 단체 및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 협력으로 진행될 때에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주요한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책과 다양한 매체를 결합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은 '읽기'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윤정옥 2004).

'한 책' 독서운동은 개혁(innovation)이다. 미국 시애틀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개혁적 아이디어가 많은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채택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목표와 체계를 갖고 발전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비영어권인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 책' 독서운동이 시작되었다.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처음으로 '한 책' 독서 운동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던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는 올해로 세 번째인 프로젝트를 위해 도서 선정을 마쳤고, 2003년 부산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책' 독서운동을 시작했던 부산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적극 참여하는 '한 책, 한 부산' 독서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벌써 삼 년째 이 독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및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참여에 대한 관·민의 인식이 너무도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 더욱이 '적게 읽고, 많이 배우라(Read Less, Learn More)³⁾'는 것이 이른바 '지식인'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이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 '한 책' 독서 운동의 모형이 빠르게 확산될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이나 부산의 '한 책' 독서운동은 개별 사례로서 보고 되었을 뿐(김숙정 2004; 박미희 2004), 전체적 특성이 분석되지는 않았어도, 국내에서도 '한 책' 독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책' 독서운동이 시작된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현황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주요한 발견 내용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이 같은 독서운동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책' 독서운동은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사회에 서든지 공공도서관이 전면에 나서야만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주요 도시처럼 한 공공도서관이 적게는 이삼십 개, 많게는 칠팔십 개의 분관을 갖고 거미줄처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있는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수이나마 공공도서관의 존재가 부각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문화 및 교육활동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독서운동'이 '도서관운동'으로서 부가가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지역사회에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기르고자 하는 '한 책' 독서운동의 순수한 본질이 도서관 홍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왜곡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한 책' 독서운동을 반드시 한 도시에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산된 '한 책' 독서운동에서 지역사회의 개념은 대체로 도시, 주, 국가와 같은 지리적 혹은 정치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 책'을 읽고 토론향으로써 공동의 문화적 체험을 갖고자 한다면, 한 학교, 한 기관, 한 컨퍼런스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갖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community)에서도 '한 책' 독서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Rodney 2004; Watkins 2003b). 예를 들어, 조지아 주 사바나에 소재한 암스트롱 아틀

3) 최근 이메일에 '지식인은 매경독서클럽을 이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배너 광고로 띄워진 구호이다.

란티 주립대학에서 'Campus Reads'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는 *A Good Man is Hard to Find and Other Stories*(Flannery O'Connor)를 읽게 했고, 2005년에는 'Savannah Reads Ernest Gaines'라는 프로젝트를 각각 수행했던 사례, 매사추세츠 주 내털 시의 내털 고등학교가 2003년 'The Book'이라는 제목으로 *The Gospel According to Larry*(Janet Tashjian)를 읽게했던 사례, 미시건 주의 그로스 포인트/하퍼 우즈 지역에서 그로스 포인트 공립학교 시스템 주관으로 'One Book, One Community'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LC 2005a)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예들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초중고 각급 학교도서관에서도 '한 책' 독서운동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도서관에서 시작된 '한 책' 독서운동이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되어, 그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도서관들을 연결하고, 이들 사이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또한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 책' 선정도서의 주제와 경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갈등, 빈부격차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및 미국이라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특성을 보다 이해하고자 하는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 서산, 순천, 원주, 부산 등 몇 개의 도시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위해 선정한 도서들은 아직 어떤 집합적 특성을 드러낼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추진한다면, 시카고에서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처음 표방하였고, 다른 여러 지역사회에서도 공유하였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용'과 같은 주제를 적절히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지역사회에서 읽힌 단 한 권의 도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얼마나 깊고 넓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쉽게 수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이권우 2004). 그러나 '한 책' 독서운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변화하도록, 혹은 생각이 같아지도록 요구하는 계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주민과 공공도서관이 합의함으로써 선택하되, 지나친 목적의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숙정. 2004.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BBS(Busan Book Start)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박미희.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양동의. 2004.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추진.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8(3): 45-66.
- 이권우.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圖書館文化』, 45(6): 22-24.
- CBC Radio(CBC). 2005. "Canada Reads: Books." [cited 2005.6.12].
<http://www.cbc.ca/canadareads/books.html>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LC). 2005a.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cited 2005.5.16].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LC). 2004b.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list by authors." [cited 2005.5.16].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byauthor.html>.
- Michalik, Candice. 2003. "One book, one city, one great experience!" *Virginia Libraries*, 49(4): 7-9.
- Rodney, Mae L. 2004.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65(3): 130-2, 155.
- Sumner, Ward. 2004. "One Jackson, One Book." *Mississippi Libraries*, 68(1): 3-5.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SPL). 2003. "Previous Years' Featured Works." [cited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samebookarchive.html>.
- Watkins, Christine. 2003a. "Grassroots report: Hundreds of communities, hundreds of books." *American Libraries*, 34(2): 55.
- Watkins, Christine. 2003b. "Grassroots report: One country, one conference, one book." *American Libraries*, 34(3): 83.